

상추 유전자원 선발, 품종개발 지원

농진청, 현장평가회 열고
41개 국가서 수집 500여 자원
육종가들이 직접 선발
조선상추·적색상추 등 선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 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추 유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6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상추는 우리 국민이 삼삼할 등 고기를 먹을 때 꼭 챙기는 채소이다. 주요 기능성 성분은 BSL(Bitter sesquiterpene lactone, 쓴맛성분)이며, 이 성분은 상추잎을 따면 나오는 하얀 진액으로 신경 안정, 진통과 최면 작용을 한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 선보인 상추는 41개 나라에서 수집된 500여 자원으로 참석한 육종가들이 직접 분 후 신종종 육성소재로 쓰일 자원들을 선별했다. 이 자리에는 아쌈종, 토종상추로 알려진 조선상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적색상추, 잎 대신 줄기를 먹는 줄기상추를 비롯해 일시수확형 버터헤드, 로메인, 양상추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선별한 BSL 고품량 5자원도 선보였다.



6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열린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에서 연구원들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상추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현장에서 평가 후 선별된 자원들은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할 예정이며, 상추 육종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씨앗은행, genbank.rda.go.kr)에서 자원 목록, 분양신청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온성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가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원들이 종자산업의 품종육성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올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행정예고

농식품부, 26일까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 분석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기여도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어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쌀 3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쌀 2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쌀 1.5%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20, 이메일: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찾아가는 양조장 4곳 신규 선정

농식품부, 남원 지리산운봉주조·청주 화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양조장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술 본연의 풍미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지원 해왔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술 품질인증,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관광요소, 품평회 수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에서 총 19개 양조장을 추천해,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남원의 지리산운봉주조 등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남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운봉주조'는 1980년에 설립되어 2대째 운영 중인 양조장으로 '지리산 허브인술' '막걸리'가 유명하다. 또한 지리산 둘레길과 인접해있으며,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고' 시티투어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밖에 충북 영동의 '불휘양장', 경북 김천의 '수도산와이너리', 충북 청주의 '화양' 등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신규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해 체험장 등 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양조장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과 종합적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신규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양조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 42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안내는 전주시 통합홍보 사이트 더스쿨닷컴(thes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으로서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우리술 체험 관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드라이브 스루로 농산물 사러 오세요'

농식품부,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서 판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DT)' 방식으로 직거래 농산물 판매를 지원한다. aT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4월 29일 과천 '바로마켓'을 시작으로 대전 '행복팜꾸러미 DT장터',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 3개 지역에서 직거래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지원한다. 과천 경마공원엔 위치한 '바로마켓'은 3월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장터로 재개장하게 됐다. 대전은 오늘부터 유성구청 광장에서 만일의 행복팜 꾸러미장터를 통해 대전시가 인증한 '현발 가득 지역농산물 꾸러미'와 농가생산 가공식품, 화훼류 등을 5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완주에서는 5월부터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서 채소, 과일, 잡곡, 반찬, 간식 등 다양한 상품을 꾸러미 박스에 포장해 저렴한 가격으로 8회에 걸쳐 판매한다. 이 매장은 201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정부 인증 우수 직거래사업장이기도 하다. 한편 aT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지원 직거래장터를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다. 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이번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을 통해 판로가 막힌 농가에게는 활로가 되고,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안심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전 남전주지사, 완산경찰과 '안전 스쿨존' 사업 공동 추진

한전 남전주지사(지사장 김선안)와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원석)는 6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전력설비를 활용한 '안전 스쿨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전주지사와 완산경찰서가 최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차량안전의 각별한 주의와 스쿨존 안전인식을 강화해 '사회공헌 사업'연계, 지역공동체 교통안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의 전주를 활용, 어린이와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전주 완산구 소재 한들초등학교 및 학원가 등 3개소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규정속도) 안내시트' 부착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과 동시에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전 남전주지사는 시인성 높은 교통안전 안내스티커를 부착을 담당하고,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진단과 교통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했다. 김선안 한전 남전주지사장은 "작년 완산경찰서와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이어 이번 안전 스쿨존 조성사업 등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소외 아동·청소년 나눔 실천 노력 '결실'

국민연금공단, 어린이날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동의 인권·안전·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수상식에서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13개의 유공표창이 수여됐으며,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공단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아동·청소년 후원 프로그램,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 청소년 캠프 운영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2013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총 5,181명에게 약 21억 원을 후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단(173개)을 운영해 아동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방과후 학습지도, 책상·책장 제작 기증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동의 인권·안전·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아동 75명에게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1인 1나눔' 계좌 후원을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장애 극복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공단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페인트칠, 운동 시설 조성, 교육봉사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아

동복지에 위한 도움의 손길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갔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단의 나눔 실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밀묘 소식재배 우수성·소득 증대 위한 이양 시연

농협-농진청, 균평작업 등 매뉴얼화 한 현황판도 함께 전시

농협과 농촌진흥청은 6일 김제시 백산농협(조합장 강원구)에서 이성의 농협중앙회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밀묘 소식재배 이양' 시연회를 가졌다. 농협은 △농촌 인력부족 △수입농산물 확대 △국산농산물 소비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적합 육묘기술 및 이양시기

등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 신기술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연회에서는 균평작업, 종자관리, 파종작업, 소식재배 효과 등을 매뉴얼화 한 현황판과 농자재도 함께 전시됐다. 올해 소식재배는 1,118ha로 전년 683ha 대비 102.3% 증가했다. 밀묘 소식재배는 관행농법 대비 농업생산비 50% 절감과 모관수 감소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령화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에 효과가 있어 향후 확대가 예상된다. 이날 행사는 좌석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성의 농협중앙회 회장은 "적합영농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아낌없이 영농지원을 하겠다"면서 "농기계은행 농작업 대행과 재배 신기술 보급을 적극 확대하여 농가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과 농촌진흥청은 6일 김제시 백산농협에서 농업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밀묘 소식재배 이양' 시연회를 가졌다.

전주수목원, 7일부터 '오픈'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임시휴원 조치를 끝내고 오늘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전주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입장 및 관람을 할 수 있다. 단, 정부의 생활방역실천 지침에 따라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시설(유리온실 등)은 당분간 폐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권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수목원을 찾아주시는 관람객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